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라”

학부모, 학생인권조례 폐지 운동 전개

조례 시행 이후 교권침해 13배 증가

초중고 학생들의 학부모와 시민들이 최근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를 지적하며 조례 폐지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월 14일 경남학생인권조례반대경남연합(이하 경남연합)이 경남학생인권조례반대를 위한 시민과 종교계를 중심으로 서명을 받아 경남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지난 11월 17일 조례반대집회와 함께 서명운동을 벌인 경남연합은 1만 명 이상의 반대서명을 받았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2008년부터 몇 차례 추진되었지만 계속 학부모들의 반대와 경남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통과되지 않았으나, 최근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지역 학부모들의 단체인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는 지난 11월 20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나쁜 인권’ 개념을 퍼뜨리며 교권추락과 학생 방종을 야기하고 있다.”며 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연 뒤, 서울시에 ‘학생인권조례폐지주민발의안’ 청구인 등록 절차를 밟았

다. 주민발의가 성사되려면 서울시 유권자의 1%인 8만5000명의 실명 서명이 필요하다. 이 단체는 청구인 등록이 완료되는 12월 중 본격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경기도교육청에 접수된 교권침해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전인 2010년 130건에 불과했지만 조례 시행후인 2012년 1691건으로 13배나 증가했다. [GNPNEWS]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에스겔 33:19)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요한계시록 22:11)

기도 | 하나님, 온 세상이 악을 드러내려는 악한 자의 수중에 들어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때에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봅니다. 이때 악인을 돌이키게 하시고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주님 은혜 아래 살게 하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 라오스에 있는 한 교회의 성탄행사에서

라오스의 더운 날씨와 어울리지 않는 한겨울 분위기의 성탄절 현수막이 교회의 시멘트벽에 걸렸다.

꽃이며, 전구 등으로 한껏 분위기를 자아낸 붉은 무대 위에는 가브리엘 천사로 분장한 소년이 수줍게 웃고 있다. 그 앞에는 소녀 마리아가 앉아 역시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짓고 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성도들도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에 마냥 행복하게 웃고 있다.

그날, 흑암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빛이 임했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기쁜 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를 통해 한 여인에게 들려졌다. 그리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기쁜 소식은 완성되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저 무대 한편에 그려져 있는 산타클로스나 다른 무엇이 결코 될 수 없다. 오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GNPNEWS]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누가복음 1:30~31)

다음 호는 1월 14일자로 발행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49)

당신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나요?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해악을 알지만 술, 담배가 주는 쾌락을 놓기가 쉽지 않죠? 이미 중독되어 오히려 그것들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조정하는 형국입니까? 세상은 이렇게 자기 몸과 마음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노력하고, 성과도 있다고 진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술 취한 사람을 보십시오.

오. 비틀거리며 걷는 그 걸음은 사실 바르게 걷고자 애쓴 결과입니다. 술 취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노력한 최선의 컨트롤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잘 컨트롤하고 사는 부류라고 장담하고 싶으시겠지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당신도 아닙니다. 당신 인생을 누가 운전하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입니까.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스스로 끌고 간 당신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죽습니까? 죽음을 향해 달리느라 기름 넣고, 휴게소 들러 밥 먹고, 그 복잡한 도로를 짜증내며 달리고, 때로는 새

치기하면서 그렇게 달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죽음에 그쳐도 “허무하다.”하면서 생을 마치면 그나마 괜찮겠습니다. 당신이 운전한 종착지는 죽음이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최선을 다해 도착한 곳이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빨리 운전대를 예수님께 넘겨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 인생의 운전대를 잡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내어 주신 분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취해 운전해 오던 인생의 질



일러스트=김경선

주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 드리세요. 목숨 걸고 당신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가장 안전하게 당신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GNPNEWS]

*** 신앙상담 316전화**
이 글을 읽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하세요. 복음의 소리 '316전화'
☎ 1670-3160

INSIDE

- 뉴스 | 북한**
북한이탈주민, 기독교가 41.7%로 가장 많아 2면
- 기획 |**
거짓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5가지 3면
- 인터뷰 | 윤성인 대표**
“문화예술로 복음을 섬기는 공동체를 꿈꾼다” 5면



- 칼럼 |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전진하고 있다” 6면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북한

북한이탈주민, 기독교가 41.7%로 가장 많아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종교자유백서, '종교자유 없다' 99.6%

북한이탈주민 99.6%가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98.7%가 북한에 당국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가정예배 처소는 없다고 응답했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이 단체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2007년 이후 입국자 1만2476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 종교자유 침해에 대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이 단체에서 발간한 '2017 북한종교자유백서'는 북한에서 종교활동시 처벌받게 되는 수준을 조사한 결과, 가장 낮은 처벌 수준인 노동단련형은 전체 응답자의 2.8%에 불과하고, 교화소(한국의 교도소)행은 11.3%, 가장 높은 처벌을 의미하는 정치범수용소행은 50.9%라고 말했다.

또 비밀스러운 종교참가 경험에 대해서는 1.3%의 응답자가 '북한에서 참가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북한에서 성경을 본 경험을 갖



▶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서 발간한 '2017북한인권백서'

고 있는 응답자는 4.2%로 나타났다. 현재 자신의 종교를 묻는 질문에 대해 41.7%가 기독교라고 답했고, 불교 10.1%, 천주교 9.5%,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8%, 미상은 10.4% 순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 교화소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 비율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 1990년대의 인권 침해 사건은 4.1%를 기록했지만,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각각 7.2%, 13.2%로 증가했다.

NKDB는 지난 2007년부터 해마다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로 11번째 발간된 이 백서에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식 변화와 북한 내 외부 정보 유입 상황, 북한 내 마약 실태 등을 다룬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GNPNEWS]

유럽

英, 교사가 여학생을 '걸(girl)'로 불렀다고 해고



▶ 조슈아 서트클리프(출처: metro.co.uk 사진 캡처)

영국에서 스스로 성정체성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소녀에게 '여자 아이(girl)'라고 불렀다가 교사가 해고당했다고 10일(현지시간) 현지언론 메트로가 보도했다.

잉글랜드 중남부 옥스퍼드셔의

한 중학교 수학교사였던 조슈아 서트클리프(27)는 수업 중 한 여학생에게 과제를 잘 마쳤다고 칭찬하며 '걸(girl, 여자 아이)'이라고 표현했다. 그러자 평소 자신을 '보이(boy, 남자 아이)'라고 불려달라고 교사와 친구들에게 말해왔던 이 여자 아이는 거세게 항의했고, 아이의 부모는 성별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해당 교사를 처벌해야 한다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서트클리프는 "항의 이후 나는 어떠한 수업도 하지 못한 채 근무시간 내내 교무실에서만 보내야 했다."면서 "일주일 간의 조사가 끝난 뒤 학교 측은 내가 학생들에게 차별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학

교의 평등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크리스천법률센터는 성명서에서 "교사들은 '트랜스젠더의 망상'을 가진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미리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옥스퍼드의 복음주의 교회에서 목회자로도 섬기고 있는 서트클리프는 "사실 기독교인인 내가 그 학생을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대하는 것은 신념에 어긋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먼저 알았다더라면 '여자 아이'라는 표현은 굳이 쓰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GNPNEWS]

아프리카

에리트레아 성도 35명, 15년째 재판도 없이 수감

한국순교자의소리는 최장 15년째 구금되어 있는 에리트레아의 그리스도인 35명의 석방을 위해 35일 동안 기도를 요청한다고 최근 밝혔다.

순교자의소리는 최근 에리트레아의 테메스겐 게블히웨트 목사를 초청, 인권과 종교 자유에 관한

한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불리는 에리트레아 정부에 의해 감옥에 갇혀 야만적 학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전했다.

테메스겐 목사에 따르면, 현재 수감된 35명의 그리스도인은 지난 2002년 미등록 복음주의 교회와 오순절 교회가 폐쇄당하며 수감된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지금까지 갇혀 있는 성도들이다.

이들은 12년 이상 정식으로 기소되거나 재판에 부쳐지지도 못한 채 감금돼, 면회객 접견권이 나 석방희망도 없이 갇혀 있다.

[GNPNEWS]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이-팔 '예루살렘 갈등' 최고조... 로켓포 발사에 탱크 보복공격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에서 11일(현지시간) 로켓포탄 최소 2발이 이스라엘 남부 아쉬켈론 지역을 향해 발사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로켓 공격을 받은 지 1시간도 안 돼 가자지구의 하마스 군조직의 기지 2곳을 포격·공습했다.

하나님,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전쟁과 살상으로 탈취한 승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이신 '죽음을 통한 승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우디, 여성운전 이어 영화관도 허용... 내년 3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11일(현지시간) 영화 극장을 상업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영업 허가서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발급한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아와드 알라와드 공보부 장관은 "영화관 허용은 사우디의 문화 경제적 발전의 분수령"이라고 평가했다.

주님, 사우디의 극장운영으로 많은 콘텐츠가 유입 될 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거룩한 영화들이 이 곳을 덮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슬람 혐오 못 참겠다"... 유럽서 '역이주' 택하는 난민들

유럽의 교육, 고용, 언론, 정치, 사법체계 등에서 '이슬람포비아'(이슬람혐오증)를 견디다 못해 유럽을 떠나는 시리아 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유럽의 이슬람포비아 보고서'(EIR)를 인용해 4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주님, 분노에 사로잡힌 유럽인들과 매순간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난민들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인간의 자비와 긍휼은 유한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영원한 안식과 만족이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7년 12월 24일 ~ 2018년 1월 13일

- | | |
|--|-------------------------------------|
| 12월 25일~30일 | 1.4(08시~12시) |
|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 (최*)010-4202-0079 |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
| 12.25~26, 29~30(매일10시~12시) | 1.5(08시~20시) |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
| 12.25~30(매일14시~19시) | 1.5(10시)~6(10시) |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031-432-1590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
| 12.28(06시~12시) | 1월 8일~13일 |
|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 (전**)010-5337-2771 |
| 12.29(08시~20시) | ▶전북 전주 / 전북전주연합 (김**)010-7117-9397 |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 1.8~9, 11~12(매일10시~12시) |
| 12.29(22시)~30(22시)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 1.8~12(매일14시~19시) |
| 1월 1일~6일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031-432-1590 |
| ▶경북 의성 / 기도24-365본부 (박**)010-2837-4365 | 1.11(08시~12시) |
| 1.1~2, 4~5(매일10시~12시) |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 1.12(08시~20시) |
| 1.1~5(매일14시~19시)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031-432-1590 | 1.12(10시)~13(10시) |
|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

*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거짓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5가지



미국의 웹사이트 크리스천헤드라인에 게재된 기독교 라디오 프로그램 '더

리커넥트(The Reconnect)'의 진행자 카르멘 라베르지(Carmen LaBerge.사진)의 기사를 번역, 게재한다. <편집자>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동안 '가짜 뉴스'가 정치적 현상으로 떠올랐다. 이런 거짓들은 선거가 시작될 때부터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되어 왔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포스트모던 또는 탈(脫)기독교문화가 진실에 대한 대화에서 거짓으로 드러나고 여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는 지금 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한다.

1. 진실 된 사람이 되라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가 거짓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이 거짓의 아버지는 기만을 사고 판다.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 그리고 진실의 반대편에 있다. 거짓의 아버지는 우리의 사고를 왜곡한다. 이것은 가장 오래된 그의 전략이다. 그가 쳐 놓은 낚시 바늘에 꿰인 인간의 마음을 되돌리려면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한다. 거짓과 거짓말쟁이를 따르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것을 선하지 않다고 확신하게 된다. 그들은 인간의 정체성이나 하나님의 창조질서, 성

정체성과 도덕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며 자란다. 이들은 또한 하나님에 관해 뒤바뀐 진실과 거짓에 속게 되며 진리 그 자체도 왜곡하여 받아들이게 된다.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 시대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2. 진실을 알라

진리는 이것이다.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구원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말씀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다. 왜 사람들은 우리가 말한 복음을 믿어야 할까?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쌓아갈 수 있으며 사람들이 듣게 할까? 또한 어떻게 거짓의 아버지가 심어 놓은 수많은 철자들이 활동하는 문화 속에서 단 하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을까?

기독교인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음의 아름다움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또한 기만이나 속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주길 원한다면 거짓과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과 타협하면서 진리를 말할 때, 사람들이 당신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타인에게 믿을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위협받게 될 것이다.

3. 거짓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라

모든 세대는 사기꾼들을 만나게

된다. 이 사기꾼들이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장행렬에 참가해 그들의 아이디어를 보여준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그들이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을 얻기 위해 어떻게 기독교인들과 겨루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가 쓴 책 '진실을 말하다(Speak the Truth)'에서 언급한 내용을 소개한다.

- 이름 짓는 자: 그는 하나님을 좀 덜 신비스럽고, 덜 위엄적이며, 덜 성스럽게 만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그리고 이것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또한 기능적 측면, 특성,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별명으로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단지 하나의 비유적 존재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름으로 부른다.

- 정의 내리는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예수님 자체로 설명하지 않으며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과 반대로 나타낸다. 또한 예수님을 영존하며 함께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2위격으로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으며, 구약성서에 드러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동떨어진 존재로 설명한다.

- 이해하는 자: 그는 악인이라기보다 피해자에 가깝다. 그는 교회의 일원이며 크리스천 블로거들의 글을 읽는다. 주일 아침에 열리는 축구경기에 가거나 자신의 신앙적인 경험을 영성에 도달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어

떤 거리낌도 없다.

이러한 불완전한 진리들과 완전한 거짓들은 사람들을 속이며 거짓의 아버지의 거짓말에 사로잡히게 한다. 그들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 불신하게 만든다. 크리스천의 역할은 우리 문화 속에서 웃음거리로 전락해 버린 하나님의 모습이 회복되도록 거짓에 맞서는 것이다.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므로써 하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

4. 진리에 다가가라

길거리나 어떤 특정 장소에서 거짓과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유다서 1장 17~23절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공활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공활히 여기라”

5. 성경적으로 행동하라

앞에서 언급한 유다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하고 있다.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진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라. 거짓을 인식하라. 경건하지 않는 열정을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의 현실을 직면하라. 우리는 신앙으로 세워져야 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분노가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화려한 세속적인 가장무도회에 참여한 사기꾼들이 기독교인들의 삶을 틈타고 들어올 때 성도들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

유다서는 거짓 가르침과 너무 가까이 자신의 파괴적인 생각들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한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와 증인된 우리의 삶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희망을 지키기 위해 항상 준비 되어야 한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열매들을 바라보게 해야 한다. 어둠에 있는 그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GNPNEWS]

번역. 국제팀

FBI, 낙태아 장기 판매한 '가족계획연맹' 조사

낙태아 한 명에 수천 달러 벌어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낙태한 아기들의 장기와 신체 일부를 판매한 사실이 포착된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이 지난달 16일 보도했다.

여성의 권리 신장과 건강을 위해 힘쓰는 단체라고 알려졌던 가족계획연맹의 고위 임원들이 지난해 9월 언론과 관련법을 피해 낙태아의 신체를 팔아 이익을 도모했던 동영상이 폭로되면서 많은 파장을 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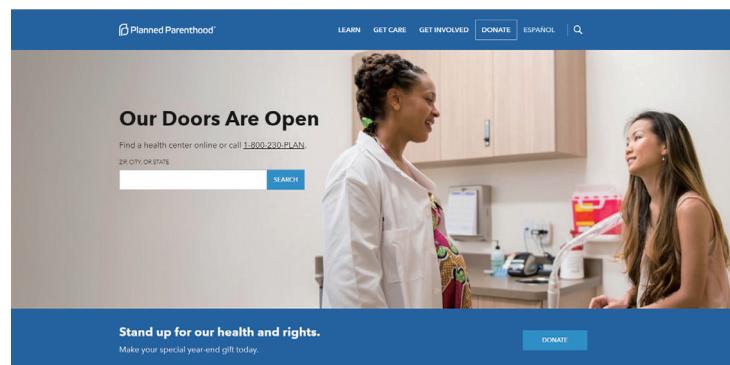
FBI는 상원에 낙태아의 신체를 거래하는 가족계획연맹의 서류들

을 넘겨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의 동영상은 폭로했던 미국 의료진보센터는 “법무부 총회에서 검토를 거친 상원 사법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가족계획연맹에 대한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의료진보센터의 데이비드 달라이든은 “FBI 수사가 오랜 시간동안 지연되고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해 “우리 시대 최고의 잔학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가족계획연맹의 정부 업무 담당 부회장인 데이나 싱아이지는 크리스천포스트에 아직 FBI와 접



▶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웹사이트

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러한 비난은 근거가 없으며, 생식 보건 의료를 종식시키려는 시도이다. 가족계획연맹은 주요 의학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태아 조직

을 기증하는 환자의 선택을 용이하게 했고, 이 일을 통해 결코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계획연맹이 수익을 위해 낙태아

의 신체를 팔았다는 근거가 나타나 있다. 가족계획연맹의 낙태의사협회 미국 디렉터 템 밴더리는 “몇몇 동료들이 이를 통해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고 말했다.

낙태를 반대하는 단체인 '라이브 액션'의 창립자인 라일라 로즈는 “진실은 이것이다. 가족계획연맹이 아기들의 신체의 일부분을 얻음으로써 돈을 벌었고, 관련 동업자들은 팔, 허파, 뇌, 그리고 눈 등으로 각각 수백 달러를 받게 되기 때문에 낙태아 한 명에게서 수천 달러를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 [GNPNEWS]

번역. 국제팀

기획 | 조선선교열전 (12) - 전라남도 편

풍토병으로 잇따라 소천...한국에 생명을 바친 선교사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올해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132년을 지나가고 있다. 구한말부터 본격화된 개신교 선교 역사는 문화, 교육, 의료 분야에서 우리나라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며 한반도의 근대화와 함께 진행됐다. 우리나라 곳곳의 선교역사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본다. <편집자>

생업을 포기하고, 첩과 헤어지고

목포의 초기 신자들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복음의 능력을 증거했다. 40세 전후의 김윤수는 오웬 선교사의 진료실에서 연로한 어머니의 손을 치료할 때 전도를 받았다. 얼마 후 그는 당회 모임에 나타나 세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술을 만들어 파는 생업을 갖고 있었다. 그 역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다. 김윤수는 학습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며, 다른 생계수단이 있는지 찾아볼 것을 권면 받았다. 그는 낙심하지 않고 다음 시험 때 나타나 직업을 바꾸었으니 학습반에 넣어달라고 했고, 이후 세례를 받았다. 그는 부인과 어머니, 장모를 예수께 인도하고 기독교 가정을 이루었다. 오랫동안 그는 광주교회의 시무장으로 섬겼다.

또 다른 성도였던 김영진의 이야기는 선교 초기 몹시 다루기 힘들었던 일부다처제 문제를 잘 말해 주고 있다. 김영진에게 있어 복

음으로 인한 가장 큰 고통과 승리는 첩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기독교인이 되기 전, 그 시대 사람들이 흔히 그랬듯 본처가 아들을 낳지 못해 첩을 들었다. 젊고 고운 김영진의 첩은 아들과 딸을 낳아주었다. 그러나 김영진은 이 문제로 세례를 받지 못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문제를 충분히 각성하고 1908년에 첩과의 관계를 청산했다. 그는 첩에게 기와집과 살림을 장만해 주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6년간 생계비와 자녀들을 기를 양육비를 주며 대가를 치렀다. 김영진이 이 믿음의 결정을 한 이후 상당한 고난이 뒤따랐다. 첩의 오빠와 장모는 이 결정에 화가 나서 그를 때리고 옷을 찢었다. 그녀의 오빠는 칼을 들고 선교사 촌까지 쫓아오기도 했다. 후에 그는 본처와 다시 합쳤는데 그녀는 김영진보다 먼저 기독교인이 되어 있었다.

선교사들의 죽음

그러나 어디든 교회가 일어나는 곳에서 선교사들의 희생도 따랐다. 목포 선교부가 생겼던 초기 1898년 11월에 이 땅을 밟았던 의료선교사 오웬은 1900년에는 북장로회 여선교사 화이팅(Georgiana Whiting)과 결혼해 네 자매를 두었지만, 지방 순회 전도에 열중하다가 폐렴이 도져 1909년 4월 3일 별세했다.

목포 선교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가던 중에도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 벨 선교사의 부인 로티 위더스푼(Lottie W. B.) 선교사가 풍토병과 심장 발작으로 1901년 4월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이다. 벨 목사는 전주까지 가는 지방 선교 여행을 하느라 목포를 떠나있었다. 전주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문을 받고 바로 출발했지만 목포에 도착했을 때는 부인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뒤였다. 그녀는 아들 헨리와 두 살배기 딸 샬롯을 두고 32세의 나이에 숨을 거두었다. 벨 목사 부인의 사망은 한국에서 남장로교 선교사가 처음으로 소천한 사건이었다.

그녀는 마을 소녀들을 대상으로 가정학교를 시작했지만, 주부 선교사로서 사택 건축공사를 돕고 한



▶ 오웬 선교사(출처: 한국기독교회사)

국인 어학선생과 오웬, 스트레퍼 선교사까지 동거하는 집안 살림 꾸리는 데 어려움이 컸다. 서울에



▶ 유진 벨 선교사와 아내 로티, 아들 헨리, 딸 샬롯과 함께(출처: 유진 벨 재단)

서 함께 일하던 유모를 동반하지 못해 새 유모를 찾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집안일을 돌보는 시골 하인들이 서구 문명에 익숙하지 못한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편 벨 목사는 시골의 전도 여행과 선교회 활동 등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다. 그녀는 여동생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나는 남편이 선교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사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힘쓰고 있어.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기르고, 함께 사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나의 선교사역이 될 거야. 나로서는 이 모든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없지만 해야만 해. 언제나 향수에 젖지만 한국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믿어.”

장례를 마친 벨은 두 아이를 데

리고 미국에 돌아갔다가 2년이 지난 1903년에 한국으로 다시 와서 1904년 광주로 이사하기까지 목포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

그 후 일 년도 되기 전 오웬 의사와 그의 부인은 피치 못할 건강문제로 스트레퍼 선교사 한 명만 남겨두고 고국으로 떠났다. 처녀 선교사 홀로 이 땅에 남은 것이다. 목포 선교부는 얼마간 닫기로 했다. 6개월 후 전주에서 사역했던 레이놀즈 선교사가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와 목포 선교부에 배치되었다. 이후 1903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페어맨 프레스턴(Fairman Preston) 목사 부부가 오자 목포 선교부는 완전히 열리게 되었다. <계속> [GNPNEWS]

참고문헌: <한국선교이야기>(조지 톰슨 브라운 지음, 도서출판 동연, 2010)



선교 통신

무슬림인 그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나는 얼마나 기도하는가?

인구의 대부분이 무슬림인 세네갈. 현지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와 함께 견고하게 자리잡은 그들의 거짓된 믿음도 보입니다. 때로는 실망되고, 또 좌절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문화와 삶을 배우게 됩니다.

며칠 전에는 '마갈뽀바'라는 이슬람 명절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이슬람 주요 종파인 '무리드'의 창시자 '아마두 밤바'가 모스크를 세우고 코란을 전파한 것을 기념하는 '뽀바'라는 자신들의 성지를 순례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지부(선교센터) 차량을 운전하는 '사디오 은디아'(가명)라는 친구도 아마두 밤바를 존경하는 무슬림입니다. 이 나라의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그러하듯이 그도 아마두 밤바의 사진을 지갑 같은 곳에 붙이고 다닙니다.

명절을 보내고 돌아온 사디오와 이동 중에 차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명절 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물었더니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며, 가족들과 함께 뽀바에 갔고 그곳에서 이들 동안 먹고, 자고,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는 그곳에서 일주일 이상을 지내면서 기도했다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건강과 돈을 많이 벌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식구들을 위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 기도했냐고 물어보니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 자기가 일을 할 수 있고 월급을 받고 가족들의 경제적 필요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까지 되풀이 하는 것이

었습니다.

저는 감동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무슬림인 그가 크리스천인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는 말에 제대로 한 방 먹은 기분이었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무슬림을 위해 이 땅에 왔는데, 거짓을 믿고 있는 무슬림 친구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니!

저도 너와 너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기도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한 구원을 얻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슬림인 사디오는 날 위해 기도하는데, 나는 그 친구를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의 방향은 무엇인가?' 회개가 되었습니다. 저는



본지 자료 사진

그 영혼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에 대한 기도보다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언어를 어떻게 더 잘 해야 할지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땅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제 안에 이 땅의 영혼을 위해 부르짖는 기도

를 회복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네갈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슬람 경전인 코란만을 배우는 '다라'학교에서 일반정규 수업이 진행되도록, 다음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GNPNEWS]

세네갈= J 선교사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문화예술로 복음을 섬기는 공동체를 꿈꾼다”

‘연극을 통한 문화선교’를 꿈꾸며 달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내가 아닌 타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림자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겼던 꿈은 이미 희미해져 있었다. 절망의 순간, 십자가 앞으로 주님이 불러주셨다. 첫사랑을 기억나게 하셨다. 문화장사꾼이 아닌 문화선교사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윤성인 아티스(49) 대표를 만났다.

대학로 한복판인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이화장길 100에 위치한 쇠대 박물관 지하. 200석 정도의 객석을 갖춘 작은극장 ‘광야’가 지난 2017년 7월에 크리스천 공연 콘텐츠의 산실을 꿈꾸며 문을 열었다. 이 시설을 기독교문화의 들판으로 일궈낼 꿈을 꾸고 있는 윤성인 대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꿈만 같습니다. 사실 지금 대학로의 공연시장은 초도화 상태입니다. 많은 극장이 문을 닫고 있고,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이때 극장을 개관한다는 것은 정말 무모한 짓이라는 얘기를 듣기 딱 맞습니다.”

87년 광성교회 청년들로 구성된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16년 여름 그 훈련과정에 참여했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훈련을 받으며 존재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 자체가 죄된 속성임을 깨닫게 됐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된 삶을 깨닫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만드려고 한 거죠. 제가 자아 숭배의 거대한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질문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만큼 왔는가?’ 그러나 이 질문이 피조물로서 얼마나 교만한 물음이었는지 알게 됐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을 흠모하고 따르게 하여 결국 위인이 되고 싶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십자가 앞에 서게 됐다.

-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대로



기독교문화 선교사로 재헌신하는 윤성인 대표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평소 꿈꿔오던 뮤지컬에 대한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다. 그 무렵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씨가 직접 글을 쓰고 연출하고 안무까지 맡은 창작 뮤지컬을 관람하게 됐다. 예술적 완성도가 다소 떨어진다고 마음 속으로 생각할 때였다. 그때 주님이 그의 내면에 강한 책망으로 말씀하셨다.

“너 같이 잘난 전공자들이 저 뇌성마비 시인과 같은 마음으로 공연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네가 비슷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있다.”

그는 벼락같은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고 부끄러움으로 통곡했다. 그때 주님이 주신 ‘이제 내가 좋아서 하는 공연이 아닌 나를 위한 공연을 만들라’는 사명을 받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사명과 비전은 점점 색이 바래져갔다.

하나님의 책망에 통곡하며 회개, 그러나...

- 십자가 복음 앞에 선 이후, 그 첫 부르심을 다시 붙잡게 되셨나요?

“뒷 배경이 있는 조직보다 주님의 부르심을 주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이제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가 있는 삶’을 전하는 비전을 붙잡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뮤지컬로 담는 일에 순종해 온 문화선교단체 ‘문화행동 아트리’ 김관영 목사님과 협력하게 됐습니다.”

그는 2002년 ‘더 플레이’로 한국 뮤지컬대상 작품상을 받을 때 김

관영 목사님과 함께 작업을 했다. 그러나 주님이 각자를 온전케 하는 과정을 거쳐 십수년만에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셨네요.

“지난 여름에 받은 복음훈련의 섬김이를 1년 만에 다녀왔어요. 그 훈련과정을 섬기면서 제가 무엇을 놓쳤는지 볼 수 있게 되더군요. 그러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확정하고 세상의 끈을 다 내려놓게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선물을 준비해두셨더군요. 정말 갑작스럽게 작은극장 ‘광야’가 주어졌습니다. 이 극장을 계약하는 과정도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 앞으로 하실 일이 이 극장 광야를 운영하는 것이인가요?

“그동안 문화예술선교단체 아트리를 통해 훌륭한 콘텐츠가 만들어졌어요.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콘텐츠를 세상에 전하는 선교적 기업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앞당기는 기업을 꿈꾸고 있어요.”

- 회사명이 선교단체 아트리와 비슷한데 아티스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나요?

“최근 조선의 한센병 환자를 위해 헌신한 서서평 선교사의 영화를 보면서 감동적인 문구가 제 마음에 새겨졌는데, 그게 서비스, 섬김이라는 말이었어요. 선교사님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Not Success, But Service)’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회사 이름에 ‘서비스’를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문화예술을 뜻하는 아트와 서비스를 연결해, 우리는 함께 동행하는 공

동체라는 의미로 (주)문화동행 아티스라고 결정하게 됐어요.”

-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현재 아트리를 통해 주님이 허락하신 공간이 있어요.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에 위치한 ‘문막 말씀 세상’이란 공간이에요. 700명 이상이 함께 숙식을 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성경적인 뮤지컬로 말씀과 진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어요.”

섬김의 마음으로 동행하는 공동체, 아티스

- 해외에 그런 곳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비슷한 개념인가요?

“미국 필라델피아주 랭캐스터에 있는 사이트 & 사운드(Sight & Sound)라는 곳인데, 이곳은 성경 이야기를 뮤지컬로 공연하는 3000석 규모의 대형극장이에요.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곳인데, 모든 작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곳이에요. 직원 수만 해도 650명이 함께 상주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작품에 담아 소개하고 있어요. 1976년에 시작됐는데, 설립 20년만인 1997년에는 미주리 주 브랜슨에 2000석 규모의 극장을 증설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아트리와 아티스는 이 문막 말씀 세상에 고1부터 대학까지 7년 과정의 가스펠 아트스쿨을 신설, 문화선교 영역에서 활동할 다음세대를 양육할 계획이다.

-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트리와 함께 문화선교사로 헌신할 배우, 스태프, 기획자 양성을 위한 3개월 과정의 ‘광야 아카데미’(가칭)를 개설할 계획이에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하며 함께 복음을 섬기는 동역자를 세우는 것이 목표죠.”

(6면에 계속)



▶ 작은극장 ‘광야’가 있는 쇠대 박물관 전경

교회 극단 ‘사도’로 공연계에 첫발을 내디딘지 30년. 돌고 돌아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는 주님이 이끄신 과정이 그저 놀라울 뿐이라고 고백한다.

“전 ‘공연의 산업화’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배고픈 연극인들에게 꼬박꼬박 월급을 줄 수 있다면 원이 없겠다 싶었죠.”

말은 그랬지만, 나의 열심으로 내가 노력하면 된다는 ‘선한 자아’가 자신의 내면을 사로잡고 있는지 몰랐다.

- 자신의 실존을 깨닫는 계기가 있었나요?

“몇 년 전부터 권유를 받은 신앙훈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훈련에 참여할 자신이 없었어요. 일주일 휴가를 내야 하는데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보다는 제 마음이 너무 가난했어요.

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기고 질긴 자기 의로 찌든 저의 병든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박혔음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저 문자로만 알고 있던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 이같은 믿음의 고백 이후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전에 있던 직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어요. 노력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결단하게 하시더군요. 안정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온실이 아니라 광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더군요.”

서울예술대학 연극과를 졸업한



▶ 문화행동 아트리의 ‘더 북(The Book)’ 공연 모습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로템나무 아래 (5)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전진하고 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실존을 보는 것이다. '나에게 실망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말하는 것은 적어도 나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나'에 대한 털끝만큼의 기대도 접으라. 우리의 실존은 절망 자체였다. 가장 깨지기 어려운 것이 자기 '의'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고 나면 이사야처럼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음이라 하였더라"(사 6:5)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낙심', '절'



일라스트= 임아람

망'이라는 말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말인지 알게 된다. 모든 절망의 이유가 부질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능력을 결론 삼게 된다.

낙망 가운데 엎어져 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사 6:8a)

그러자 이사야가 대답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 6:8b) 상황은 변한 게 없었지만 자신의 한계에 묶이지 않고 '나'를 보내 달라.'고 외쳤다.

내 모습, 내 교회,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보면 도저히 변할 것 같지

“
'낙심', '절망'이라는 말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말인지...
”

않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았던 엘리야와 이사야는 자신들의 별거벗은 실상에 묶이지 않고 일어섰다. 엘리야는 낙심 중에 일어나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다. 그 이후에도 상황은 바뀐 게 없었고, 열매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엘리야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사야, 그도 톱에 쳐 죽임을 당할 때까지 열매 하나 보지 못했지만 충성했다.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죄악의 과도가 그 연약한 교회를 집어삼킬 것 같았던 그때,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보좌를 보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역사가 실상이 아님을 계시하셨다. 모든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철저히,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친히 완성될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전진하고 있음을 보여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전진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놀랍게 전진하고 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할 수 없다. 우리의 작은 심령 속 하나님의 나라도 전진하고 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신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만나 주실 그 날은 속히 올 것이다!(2016. 7 매시지 정리)(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과기도미디어
GOSPEL & PRAYER MEDIA

2017순회복음집회 오디오 CD 발매

오직 믿음으로

무너질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은 라합 선민이었으나 멸하여질 물건에 손을 대어 죽게 된 아간 반드시 멸망하기로 되어있던 자가 살게 되고 당연히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자가 진멸되었다.

무엇이 이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게 되었는가?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의 핵심이며 복음의 본질의 핵심이 되는 오직 믿음. 두려운 경이이자 감격스런 초대가 여기 있다. 완전한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복음과기도메시지 시리즈
Sola Fide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1:16-17
오디오CD - A[B]
Track1 (00:00-22:56)
Track2 (22:56-43:34)
트랙을 선택하면 해당 지점부터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용의 선교사
GNM-032CA

오디오 CD(2장 한세트) 6,000원
약 20분씩 4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입문의 야긴과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함께 복음을 섬기는 동역자”

저희는 이것을 '수네르고스' 프로젝트로 이름 붙였어요. 헬라어 수네르고스는 '함께'라는 뜻의 '순'과 '일'이라는 뜻의 '에르곤'이 합쳐진 동역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 끝으로 기도제목을 나눠주세요.

“사업에는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섬김에는 손해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지속적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저희는 기독교 문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이 있어요. 플랫폼이 기차와 승객이 만나는 곳인 것처럼, 저희는 그런 기독교 문화와 고객들이 만나는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 최종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입니다.” [GNPNEWS]

C.K.

▶ 서로 연합함이 아름다운 아트리 김광영 목사(왼쪽)와 아트리스 윤성인 대표

선교적 기업 (주)문화동행 아트리스 동역자 모집

모집분야: 경영관리, 공연장 관리, 공연 제작, 홍보 마케팅 등

조건: 1. 복음 앞에 자기 의를 내려놓고 문화선교사로서 정체성을 가진 자
2. 상기 모집 분야 관련 경력자

3. 충성과 배움의 자세로 임할 수 있는 분

참여방법: 홈페이지(www.stgwangya.modoo.at) 참조
문의: 02-741-9182, 010-6436-1993 [GNPNEWS]



“성경통독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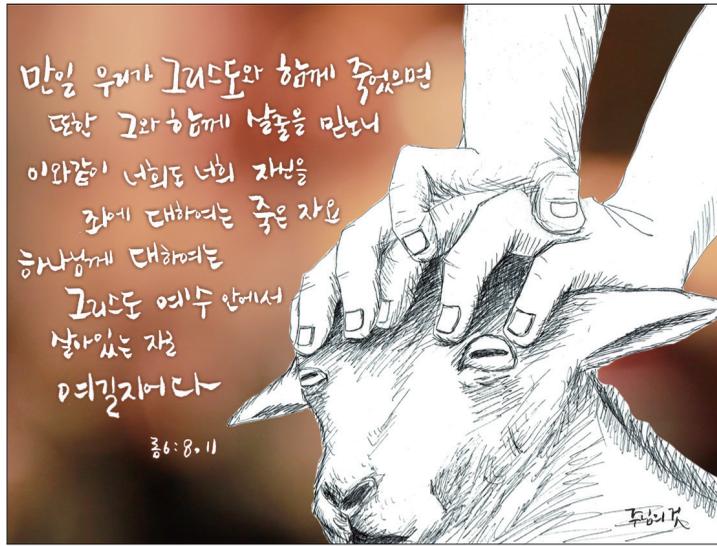
성경을 처음 읽어본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 성경통독학교를 통해 그냥 읽을 때는 몰랐던 구약의 뼈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로 복음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였다.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기해서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셨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으로서 믿을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언약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반드시 이루셨다. 그동안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24·365'를 통해 수많은 나라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은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들의 언약을 보며 그러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것을 보며 열방을 회복시키시는 일,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이 이뤄질 것을 믿고 소망하게

되었다.

구약에서 발견된 나의 모습

통독을 이끌어주시는 선교사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나의 모습을 보라고 하셨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서 우상숭배하며 죄를 짓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왔다. 병든 자아를 철저히 보게 하시는 시간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악용하며 죄 짓고 회개하고, 다시 교만해져서 죄 짓고 회개하는 행태를 무한 반복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서 내 마음대로 행동했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가 생명을 들어와 죄 된 생명이 된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나노 생각하셨다. 집 나간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멀리 도망가면 갈수록 긍휼이 불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셨다. 노아의 홍수사건이 겉으로 보기에는 심판이었지만 구원을 목적으로 한 심판인 것처럼,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셨다.



아침에 목상을 하고 밤에 일기를 쓰면서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이런 나를 보면서 '복음이 실제 된 삶이 과연 가능한가?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죄가 생명에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었다. 그때 레위기 1장의 번제를 보게 되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서 그 뜯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여 놓는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

로 씻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린다.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신 모습이다. 제물에 안수함으로써 내 죄를 넘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하나가 된 것이다. 죽음은 0% 또는 100%이다. 어중간하게 죽는 죽음은 없다. 번제물이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는 100% 죽었음을 고백했다.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이 대속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고 죽음을 확증해 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복음이 실제 된 삶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구약은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이다. 이 사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심판하신 하나님이 더 알고 싶어진다. 매일 매순간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길 소망한다. 거룩한 성, 왕 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실 주님이 기대된다. 열방을 회복시키실 주님과 그 영광에 동참하며 살 것을 결론으로 붙들었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신다. [GNPNEWS]

이예지 자매(헤브론선교대학1년)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나눠주세요. 믿음의 증인을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어머니, 혹시 성탄절이라고 아십니까?”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아이고, 아버지. 우리 영권(가명)이가 그저 안전하게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생계를 위해 일하느라 중국에서 잠시 머물던 영권이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중얼거리시던 모습을 떠올리며 힘을 내고는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영권이는 함께 일하는 동료인 동춘 아저씨의 손에 이끌려 성경공부를 하는 곳에 가게 되었다. 그곳에는 서른 명 남짓한 사람들이 가득 모여 앉아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은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다. 열떨결에 그들과 함께 성경공부를 하게 된 영권이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달이 지나고, 12월 중순이 되자 영권이는 중국에서의 일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영권이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어디 다친 데는 없고?” “그럼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를 지켜주셨는걸요.” 어머니는 영권의의 말에 흠칫 놀라 뒷걸음을 쳤지만 애써 모른 척 하는 기색이었다.

뜨끈한 밥 한 그릇을 푹푹 비우고 아랫목에 몸을 녹인 영권이는 어머니를 불러 앉혔다. “어머니, 혹시 성탄절이라고 아십니까?” “너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정신이 나갔니?” “어머니,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내래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습네다. 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는 떼어버리고, 예수님 초상화 걸어놓자요.” “제발 좀 목소리 좀 낮춰라. 어째 우리 집안을 몽땅 죽이자는 것이니?”

영권의의 예상치 못한 말에 어머니는 깜짝 놀라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다. 영권이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머니, 내일이 성탄절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구요. 어머니, 그동안 '아버지'를 부르면서 중얼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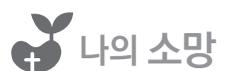
▶ CGNTV 블레싱 한반도의 '북한의 크리스마스'(출처: 유튜브 영상 캡처)

던 말이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던 것이었지요?”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네 너희들에게 흠이 될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외할머니가 교회 집사였을 적에 나도 너희 할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었다. 누구한테 말을 하지는 못해도 늘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왔지.” “어머니, 내래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어머니의 그 기도가 생각나지 뭡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지, 중국에서 한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돌아왔습네다.

복음을 듣고 보니, 어머니께서 지난 번에 밭에서 주워 오셨던 주황색 풍선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쓰여 있던 말씀이 번뜩 생각나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 그동안 답답해서 어찌 사셨습니까? 어머니.” 영권이와 어머니는 부동켜 안고 감격과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었다. [GNPNEWS]

(출처: 모퉁이들선교회)



내 동족에게 복음을

예루살렘의 첫번째 주교이자 유일한 유대인 주교였던 알렉산더. 그는 16세때 탈무드의 교사로 임명될 정도로 비상했다. 그런 그가 신약성경을 접하면서 유대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을 연구하던 중 예수가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 그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망을 품게 되고 예루살렘의 주교로 보임을 받는다. 하지만 그는 변절했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과 희생을 치른다. 가족과 동족에게 의절당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는 설교와 변증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1845년 11월에 이집트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심장마비로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 이후 그는 '지상에서 가장 밝은 별'이라고 불리웠다. [GN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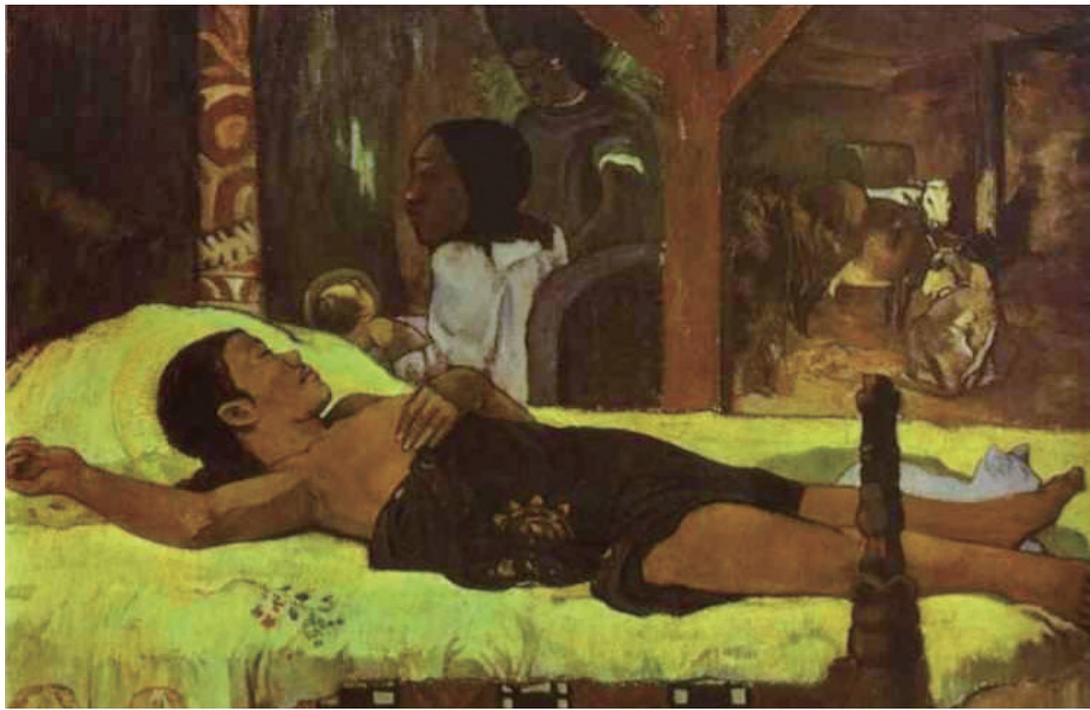
뷰즈인 아트
Views in Arts

고갱의 <타히티의 성탄(The Nativity of Tahitian Christ)>

믿음의 눈으로만 누릴 수 있는 성탄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산업혁명 당시, 고갱은 물질 중심적인 사회로 급변하는 유럽에서 버텨낼 힘이 없었다. 그런 그가 찾은 곳은 타락하지 않은 땅, 타히티였다. 그런데 고갱의 두 번째 타히티 체류기간 동안 그려진 '타히티의 성탄'을 보면, 처음 타히티에 머물렀을 때 맛보았던 환희와 감격은 어느새 사라져 버린 듯하다.

출산 후 지친 마리아는 앞 쪽에 길게 늘어져 잠이 들었다. 한쪽으로 올라간 손은 지쳐 잠든 여인의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이 평범한 원주민 여인의 머리에 둘러진 후광은 그녀가 메시아를 낳은 여인임을 가리키는 유일한 증거다. 아기 예수는 유모처럼 보이는 여인의 품속에 안겨 있는데, 이 여인은 전통적인 성화의 요셉이나,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대체된 인물이다. 유모 옆에 서 있는 천사 역시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는 듯 보이지는 않는다.



▶ 작품설명: 폴 고갱, <타히티의 성탄(The Nativity of Tahitian Christ)>, 1896년 작

구원자의 탄생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 집중되지 않은 이 단 고갱의 메마른 마음 상태를 보여준다. 고갱은 타히티의 두 번째 체류에서, 여기서도 구원을 찾지

못하리라는 좌절을 맛보았다. 게다가 현지처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사산되는 비극이 더해졌다. 연이은 고통과 절망이 고갱이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몰아갔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성탄은 단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출생하게 되었다는 딱한 소식에 불과했다.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절망은 안타깝게 지금까지도 곳곳에서 목격된다. 같은 것을 보면서도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성탄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실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한 우리 믿음의 수준과 무관하게 타히티는 물론 모든 열방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언약의 완전한 성취였다는 사실이다. [GNPNEWS]

이상윤(미술평론가)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엄마들의 고민과 마음을 나누며 학교를 시작하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신 6:6~7)

나는 할 수 있는 한 아이들 신앙 교육에 힘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주님은 신명기 말씀으로 '할 수 있는 한'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이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치기를 힘쓸 것을 말씀하셨다. 사실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보내고 돌아온 아이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았다. 아이의 가치관과 생각이 습관과 말, 행동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미 너무 많이 세상에 물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가정예배 시간은 아이가 잘못 배워온 것을 바로잡는 일이 주가 되었다. 하지만 짧은 저녁예배시간을 통해 아이를 믿음으로 자라게 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잔소리와 훈계만 쏟아질 뿐.

내가 속한 선교단체는 자녀를 둔 엄마에게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아이들을 전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루는 이 시간을 주신 목적을 다시 들으며 아이를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새롭게 부여졌다. 그렇게 좌충

우돌 '홈스쿨링'이 시작됐다. 그 이전에도 홈스쿨링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관성 있게 아이들을 교육하기가 쉽지 않았다. 느려도 진리가 분명하게 스며들고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기쁘고 감사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공동체의 일정과 스케줄에 맞춰 언제든 달라져야 했기에 예배와 학습을 병행하는 것이 짐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함께 사는 엄마 선교사들과 서로의 고민과 마음을 나누게 되었고, '조이 스쿨'이라는 작은 학교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학교

먼저 예배를 드리며 성경 안에 이미 풍성히 담아놓으신 복음의 내용으로 과목들이 정리되었다. '복음의 언어', '하나님의 이야기', '아름다운 시와 찬송', '열방기도와 세계지리', '하나님의 역사', '미술', '창조과학', '선교사 이야기' 등 이 모든 시간을 통해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있다.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작은 교실에 함께 모여 생활하다보니 다양한 모습과 우리의 죄 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한다. 서로의 허물을 너무 잘 알게 된 아이들은 종종 미워하고, 질투하며, 비교하며, 고자질도 한다. 그러나 하루도 못가서



▶ 야외수업을 나가 즐겁게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아침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고 섬길 것을 결단한다. 때로는 사과와 용서의 편지가 오가기도 한다. 어떠한 순종의 모습보다 아이들의 삶에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날 때 가장 기쁘다. 아이들이 소소한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과 우리는 늘 연약하여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 학교에서 누리는 큰 축복이다.

아이들은 그 의미도 다 모르지만 오늘도 목청 높여 찬송가를 부르고, 발음도 어려운 나라의 이름을 불러가며 열방을 위해 기도한

다. 아브라함이 주님과 보았던 밤하늘을 보며 언약의 별을 세어보고, 말씀묵상의 내용으로 다윗처럼 시도 지어 본다. 성막을 만들어 희생양 되신 어린양을 만나고, 선교사의 생애를 들으며 미래의 선교사를 꿈꾸게 된다. 또 라합의 '붉은 줄'을 만들어 구원의 밭줄을 잡아 보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의 하루 하루 나를 지으신 이를 알고 즐거워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간다.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 “주님 사랑해요! 어서 오세요!” [GNPNEWS]

이현지 선교사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7. 11. 30 ~ 12. 13 (가나다 순)

개인

박성규 안민자 안수경 안정애 안현숙 유자인 이란영 이은주 이정희 이준진 이희순 장영선 조상국 조형광 최근희 무명

교회 및 단체

겨자씨선교회 대흥중앙교회 마중물교회 마하나임심대교회 목자교회 문광교회 새순교회 수원은혜교회 양덕원감리교회 은혜신일교회 주만교회 죽전교회 춘천햄시교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 [(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